東大新聞

發行人 金東都 蓋冰
編輯人 南宋 赫
主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5
本社直通 ㉒8498

每週月曜日發行

今週一言

뜻의 노기를 조심하라。 뜻에의한 범죄를 버리고 뜻으로써 선행을 하라。

<法句經>

學生會 各種 선거 모두 마쳐

安紀聲군, 總會長당선

學生福祉향상등에 最善 代議員會 부의장 李光培군

지난 27일 11시 총회장선거인단에 의해 安紀聲(警行)군이 총학생회장에 선출됨으로써 약 1개월간에 걸친 선거열풍이 모두 막을 내렸다。 총학생회장과 대의원회議長과 선출하는 선거인단 總會가 지난 26일 오전10시F107강의실에서 열려 72학년도 총학생회장에 安紀聲군,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李光培(統計)군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南部泳학생처장을비롯 학생지도위원회 교수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에 따라 2·3·4학년 신임대의원 73명(재적98명) 출석으로 열렸는데, 무효표없이 무사히 투표를 끝마쳤다。

◇安 총회장

◇李 부의장

선거관리위원장 金玉鉉(行4)군의 사회로 진행된이날 선거는 재적 3분지2출석이란 좋은 투표율을보였는데, 南학생처장은 투표에앞서 『대학생다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참된 지도자를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金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절차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은뒤, 단대회장등 지난 25일 1시까지 등록을 마친 투 입후보자 李大聖(佛·3)군과 安紀聲(警·3)군의 소견발표를 들었다。

소견 발표에서 安후보는 『동국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다하고 건전한 학생운동과 학생복지 향상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결과 安군은 李군보다 17그 학생회장에 당선, 총학생회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대의원 副議長에는 李光培(經·3)군이 단일후보로 출마했기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한편 학생회칙에 의거, 총학생회부회장은 대학순위에따라 문리대회장인 徐大源(國·3)군이, 차석부회장은 女學生회장인 李仙馥(社會·3)양이 겸임하게된다。

◇각후보 득표수

▲安紀聲군=45표 ▲李大聖군=28표 ▲부표=없음,

京都 佛敎회원 23일 理事長禮訪

일본 교오또오(京都) 불교회 대표 22명은 지난23일 오후2시 본교를 방문, 재단이사장을 예방했다。

이들을 맞아 蔡碧岩이사장은 불교를 건한이념으로한 본교교육및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방문기념으로 「妙法蓮華經」과 본교 소개책자를 선물했다。

이들 일행은 간담이 끝난뒤 캠퍼스와 도서관및박물관을 둘러보면서 불교를 창학이념으로 한 본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單大會長 선거끝나 投票率 예년보다 上昇

지난23일실시된 루·개표결과에 따라 72년도 학생회를 이끌고 나갈 7개단대회장의 當落이 판명되었다。

확정된 당선자를보면 불교대 李大聖(佛)、문리대徐大源(國) 법정대 安紀聲(警) 경상대 具兵書(經) 공과대 張成一(食) 군등은 경합률에 영광을 차지했으며 농림대 李萬柱(農)사범대 安載根(科敎)군등은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李 농대회장

◇李 불대회장

◇張 공대회장

◇徐 문리대회장

◇安 사대회장

◇具 경상대회장

佛敎大=李大聖(佛)
法政大=安紀聲(警)
農林大=李萬柱(農)
師範大=安載根(科敎)
文理大=徐大源(國)
經商大=具兵書(經)
工科大=張成一(食)

23일오전10시 각단대별로 입후보자 소견발표를 가진뒤 곧바로 실시된 이번선거는 오후 5시경각 투표를 완료했는데 예년의 49·6%보다훨씬 높은 67%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가 끝난 오후5시30분부터는 중강당에서 張元圭교무처장과 南部泳학생처장을 비롯한 선거지도위원 및 선거관리위원등이 지켜보는가운데 봉교대를 스타트로 개표가진행, 6시30분께 모두 완료하였다。

개표완료와 함께 金玉鉉선거관리위원장의 단대회장당선자선언에따라 7명의 새로운 단대회장이 선출되었다。

이들 단대회장들은 25일오후10시 C204에서 南部泳학생처장(총장代行)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72년도 단과대회장으로 활동하게되었다。

각대학입후보자의 득표수는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투표율)

◇불교대 (92%)
▲李大聖=61 ▲林원鍾=30
▲문리대 (63%)
▲徐大源=2백18 ▲姜達中=2백5 ▲부표=15
◇법정대 (72%)
▲安紀聲=2백61 ▲李泰永=1백59 ▲부표=11
◇경상대 (42%)
▲具兵書=2백94 ▲李泰漢=1백67 ▲부표=23
◇공과대 (67%)
▲張成一=1백92 ▲李仁宰=1백97 ▲부표=13

學會長 선출도

7개 학과만이 競合

지난 23일 실시된 학과별 대표를 뽑는 학회장 선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돼 36개 학과중 26개 학회장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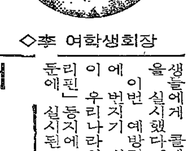
이번 학회장선거는 학과만이 경합을 이루어 선거를 치뤘으며, 나머지 29개학과는 단일후보로 당선이 결정되었다。

한편 10개학과는 입후보 등록조차 하지않아 학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학회장 명단。

▲불교대
▲印哲科=박세인
◇문리대
▲英文科=정종식 ▲數學科=김우회 ▲演映科=김환우 ▲統計科=양정기 ▲化學科=황욱하과별 대표는 뽑는 학

◇법정대
▲法學科=박상조 ▲行政科=조재천 ▲政外科=안성관 ▲貿易科=박기덕
◇경상대
▲經濟科=조시승 ▲貿易科=차희영 ▲經營科=고재찬
▲農學科=곽치석 ▲農工科=영운영 ▲農經科=정재우
◇공과대학
▲電氣工學科=한의 ▲電子工學科=정구평 ▲工經科=고수철 ▲食工科=최한수 ▲土工科=박귀범 ▲高工科=정인태
◇사범대학
▲國敎科=최건환 ▲科敎科=최충규 ▲數敎科=전인걸 ▲體敎科=함영억


◇李 여학생회장

學會長 선출도

女學生會長에 — 李仙馥(師範大)(社敎科)양

지난25일실시된 女學生會회장으로 李仙馥(社敎3)양의 당선을 선언했다。

이번 여학생회 선거는 단일후보로 출마했기때문에 무투표 당선을 확정시켰으며, 학생회칙에따라 총학생회 차석부회장을 겸임하게 된다。

◇法學科=박상조 ▲行政科=조재천 ▲政外科=안성관 ▲貿易科=박기덕
◇경상대
▲經濟科=조시승 ▲貿易科=차희영 ▲經營科=고재찬
▲農學科=곽치석 ▲農工科=영운영 ▲農經科=정재우
◇공과대학
▲電氣工學科=한의 ▲電子工學科=정구평 ▲工經科=고수철 ▲食工科=최한수 ▲土工科=박귀범 ▲高工科=정인태
◇사범대학
▲國敎科=최건환 ▲科敎科=최충규 ▲數敎科=전인걸 ▲體敎科=함영억

學會日程

7月22日	방학
8月25日	2학기 登錄
8月31日	추가 졸업식
9月1日	2학기 開學
9月1~6日	수강신청

동문 國會議員 祝賀宴 성황

24일, 同慾會서

본교출신 8代國會議員당선축하연이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新聞會館3층에서 同慾會주최로 성대히 열렸다。이날 축하연은 同慾會副會長 柳根昌(국방부次官) 동문의 개회사에 이어 李淸淵총무원장、吳法眼상무이사、金東華대학원장의 축사、동문 國會議員당선자(吳直烈、劉聖鏡、崔城九、崔炯佑의원만 참석)의 답사가 시종 화기가 넘치는 가운데 있었다。4백여동문은 관심을 보였다。

희망圖書카드함

2學期부터設置

도서관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희망도서카드함을 만들어 학생들이 요구하는 책을 충점적으로 구입할예정이다。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도서대출을 해오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대출치 못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학생들은 도서관 열람실에 마련된 희망도서 목록에 원하는 책을 기입할수 있게 되었다。

代議員 選出완료

거의單一、무투표當選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대의원 선거는 각과마다 단일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여학생회만이 경합을 이뤄 선거를 치뤘다。

이번 대의원 선출은 2·3학년에 한해 선거를 실시토록하고 1·4학년은 前학기 대의원이 재임명되었는데 사실상 2·3학년도 여학생회를 제외하고는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재임명하는 식이 되었다。

이날 확정된 대의원 손양호(佛·2)군등 36개학과 67명의 대의원들은 오후 3시 C309에서 南部泳학생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자리에서 南部泳 학생처장은 신임 대의원들에게 『포용력 있는 리더쉽으로 봉사자가 되어 入我精神에 달라』고 당부 했다。

이어 학생지도연구소 주최로 신임대의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는데 羅彦約학생과장은 『대학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뽑힌 대의원 및 4학년 대의원들은 26일에 실시되는 총회장선거의 투표권을 얻어 총회장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은 대의원 명단

◇불교대학
▲불교학과=손양호(2)
◇공업(3)▲철학과=신홍섭(2) 오진우(3)▲인도윤용태(3)▲영문학과=염광(2)▲사학과=김논경(2)▲연극영화학과=안수광(2)이철(3)▲수학과=이태원(2)김동섭(3)
▲물리학과=허왕(2)권혁본(3)▲화학과=서성균(3)▲통계학과=이승인(2)이관배(3)

◇문리과대학
▲국문학과=이혜인(2)
▲윤광봉(3)▲영문학과=염용태(3)▲사학과=김논경(2)▲연극영화학과=안수광(2)이철(3)▲수학과=이태원(2)김동섭(3)
▲물리학과=허왕(2)권혁본(3)▲화학과=서성균(3)▲통계학과=이승인(2)이관배(3)

◇법정대학
▲법학과=노영태(2)윤식(3)▲행정학과=나인수(2)정동섭(3)▲정치외교학과=최충섭(3)이재호(3)▲경제행정학과=한상익(2)강승원(3)
◇경상대학
▲경제학과=장세환(2)방정남(3)▲무역학과=최택범(3)▲경영학과=이은잠(2)박웅협(3)
◇농림대학
▲농학과=이명선(2)이세우(3)▲임학과=우경웅(2)▲농업경제학과=이덕호(2)홍보기(3)▲농업생물학과=한규영(2)성기일(3)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유재준(2)이승보(3)▲전기공학과=이성성(2)▲토목공학과=윤상열(2)이상재(3)▲건축공학과=박동철(2)심상익(3)▲화학공학과=최홍수(2)▲고분자공학과=한현근(2)최연린(3)▲식품공학과=이문식(2)이유상(3)▲광업경영학과=이희만(2)허태만(3)▲수자원공학과=손문영(3)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이화월(2)▲사회교육과=최상학(3)▲사회교육과=전현식(2)임동일(3)▲과학교육과=조경구(2)이윤의(3)▲수학교육과=권택범(2)전희준(3)▲체육교육과=이필근(2)
◇여학생회
▲음여공(社敎·2)송옥희(홍계·2)▲김홍덕(영문·3)한효남(農生·3)

夏期放學특강

法政大서英語中心

법정대학에서는 학기방학중 특강을 오는12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영어A·B를 중심으로 고시 준비와 각종 취직시험에 대비, 실력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특강 장소와 강사등은 추후 발표한다。

經商大특강

10月취직시험對備

경상대에서는 오는 10월경에 있을 각기업체 취직시험에 대비, 하계방학특강을 실시한다。

내용은 영어·전공과목(경제학·경영학)모의시험(주6회)각 기업체 인사부장및 작년도 취업자의오리엔테이션등으로 5일부터 9월11일까지 C309강의실에서 실시하게된다。

本校종합優勝

全國 화학과體典

제11회 전국대학 화학과체육대회가 지난 13일 단과대학 주최로 단대운동장에서 열려 본교 화학과생들은 농학우수상을 차지했다。

籠球 延大에惜敗

일본 교오또오(京都)시 삼보회관에서 불교대학생연합회 서울지부가 마련한대강연회에 참석 「參禪의 現代哲學的 究明」이란 논제로 강연했다。

▲金鍾逼교수(경영관리연구소장·경상대)=지난 21일 金鍾泌국무총리 偕敎授團으로 위촉을 받아 더욱 바빠지게 됐다。

▲張康鶴박사(법정대교수)=지난 24일 美 文化센타에서 대한女學生협회가 주최하는 「女性지위심포지움」에 참가, 「여성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반려라는 주제의 법률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기 때문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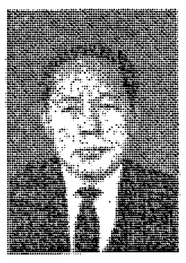
8代國會의 開院과 立法機能의 能率化 問題

生産的議會政治

國際情勢에 總和外交로

立法情報로 효율성 높여

政治社會의 적응이 필요



崔 嶢 煥 <法政大교수>

<사진>68년 1월31일 1.21사태수습을 위한 제63회 임시국회광경.

7월17일이 오면 우리는 스물세번째의 制憲節을 맞이 하게된 다。해마다 맞이하는 이 제헌절에는 우리의 慶祝心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인지 그 경축식이 높아지는 커녕 아직야 하는데 어쩌된 셈인지 그 경축식이 높아지는 커녕 오히려 분쟁과 착잡한 감회만을 갖게한다。그 이유는 우리는 이른바 23년간의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것과같은 정치현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이제 그 정치현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一、憲政의理念과實際

첫째로 현대민주제국의 헌법을 보면 국회는 ①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②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기능 ③입법(헌법의 제정및 개정·재정및 조약에 관한 승인및 인준권)기관으로서의 기능 ④국정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議會政治의 本然의 기능, 즉 그나라 政治社會의 대립의 처리와 통합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뿐 아니라 행정부의 독주와 專横을 억제하는데 그목적이 있는 것이다。우리의 국회도 이같은 諸기능이 헌법상에 명시되어있고 또 그러한 정치적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上記諸機能을 발휘하는데 노력 하였다기보다도 오히려 막사를 행정부에 끌려가기만 함으로써 국회는 非政治的기능으로서의 국회로 전락될 뿐 아니라 그 존재도 無用論的인 양상만이 계속되어 왔다。

둘째로 建國初 우리는 정치제도 혁성을 위한 연구노력도 없이 선진국의 代議政治와 정당정치제도를 이나라의 정치 基幹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이에대한 정치현동의 지지해주는 정치계층과 지도자층의 정치이념과 정책이 분명치 않았고 또 정당의 존재拘束性과 정치문화의 제도성이 없는 정치과정만이 계속되어 왔다。

셋째로 우리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권력집중화와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형성을 위한 계기—즉 1950년대 정치파동으로 인한 국회의 자주적 해산결의와 유명한 四捨五入改憲、그리고 1960년대 負傷學生亂入事件과、국회내에서의 汚物投擲事件 등을 마련해줌으로써 정치이론상 국회의 기능이 행정부기능을 優越할 수 있다는 政治道義는 삼심되어 국회는 無用論的 존재양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第8代 국회가 위와같은 前轍을 밟지않고 그 가진바 기능을 다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이하에서는 立法活動을 中心으로 몇가지 事項을 적어보기로 하겠다。

二、立法活動

현대국회의 立法機能의 초점은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는 형식적인 法制定權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의 대립의 처리와 통합화」에 있는 것이다。

입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져야할 점은 말할것도 없이 국민주권原理에따라 국회의원이 이여야하지만 현실의 입법과정은 이와는 정반대로 행정부와 정당및 각종 압력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행정부와 정당은 立法指導者의 역할을 하고있다。행정부와 정당이 이같은 역할을 하게된 배경은 현대국가의 어떻게 활동의 확대로 因한 정부의 相對的地位의 향상과 立法上의 전문적식및 기술을 필요로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要約할 수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국회는 항상 정부로 부터 제출되는 法律案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심의통과만 시켜야 할 것인가?오늘날 아무리 정당정치가발달되고 행정부기능의 확대 및 立法技術이 필요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국회도 다음사항에 盡力을한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자주적으로 정비 활용할뿐 아니라 既存法律의 實質조사를 본격적으로 할수있도록 국회자신이 행정부의 통제 즉 입법참여조사국·입법 정보국·입법고사국등으로 확장해야 할것이다。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무력화의 근본원인은 정치사회한켜 관점에서 볼때 국회外的要因은 정치권력의 실질적 기반에서도 찾아야할 것이지만 이와함께 국회內的要因은 극회의원들의 입법조사와 입법정보의 대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이와 관련되는 입법정보에 획득과 처리에 대한 수단및 조직이 부족하였다는 데서도 찾아야할 것이다。

요컨대 8代국회의원은 上記한 입법기구의 개혁과 수단및 조직의 연구 및 정보를 자주적으로 정비 활용하는 입법조사를 본격적으로 할수있도록 국회자신이 행정부의 法制處에 못지않을 정도의 有力한 기구 즉 입법참여조사국·입법 정보국·입법고사국등으로 확장해야 할것이다。우리 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무력화의 근본원인은 정치사회한켜 관점에서 볼때 국회內的要因은 극회의원들의 입법조사와 입법정보의 대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이와 관련되는 입법정보에 획득과 처리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적 결여에 있다고 할수있다。

이대한 원인은 현대에있어서 국회의 존재이유와 그기능은 요컨대 현대에있어서 國會議員들은 제각기 의 所産(1920년대)이며 현재에 있어서도 그것은 國會(上·下院)와 並立할수 있는 第3院的인 존재라고 할수 있다。

물론 立法과정에 있어서 「로비스트」의 參與문제는 歷力政治活動이 발달된 우리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즉 미국은 三權分立이라는 헌법구조와 政治的決定의 多樣性、정당조직의 단편성과 分權的성격으로 인하여 各種의 이익단체와 結社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公共政策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이른바 「로비스트」는 英·美、특히 美國의 정치문화의 産物(1920년대)이며 현재에 있어서도 그것은 國會(上·下院)와 並立할수 있는 第3院的인 존재라고 할수 있다。

이에대한 원인은 국회의 존재이유와 그기능은 요컨대 현대에있어서 國會議員들은 제각기 의 所産(1920년대)이며 현재에 있어서도 그것은 國會(上·下院)와 並立할수 있는 第3院的인 존재라고 할수 있다。

이에대한 원인은 紙面關係로 생략하겠으나 요컨대 현대에있어서 국회의 존재이유와 그기능은 前述한 「政治社會의 對立分裂을 처리하고 統合化」기 위하여 그러한 政治資源을 정치과정에 投入하는데 있는것이다。

물론 立法과정에 있어서 「로비스트」의 參與문제는 歷力政治活動이 발달된 우리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즉 미국은 三權分立이라는 헌법구조와 政治的決定의 多樣性、정당조직의 단편성과 分權的성격으로 인하여 各種의 이익단체와 結社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公共政策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이른바 「로비스트」는 英·美、특히 美國의 정치문화의 産物

□…… 금래에와서 교사는 전문직이라고를 말한다。 ……□
□…… 그러나 전문직에 합당하는 대우를 받지못하고 ……□
□…… 있는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다。지난 6월1일부 ……□
□…… 터 교직과목을 이수한 본교 4학년생 84명이 ……□
□…… 師大附高 大東中商高 明星여중등 기타 지역中 ……□
□…… 等 학교에서 3주간의 교생실습을 마쳤다。그동 ……□
□…… 안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얻 ……□
□…… 어 왔을까? 「선생님은 고되다」는 사실만을 배우 ……□
□…… 고 왔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받아들일것인가。 ……□

3주일간의 「선생님」

敎生實習 리포트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결코 쉬운일만은 아니었다。

△ 師大附高

본교학과·화학과·임학과·농학과등 4개학과에서 30명이 모두 高1·2학년을 담임했다。宗立학교중에서는 교의 절서가 비교적 정연했다는 학과는 生物을 담당했고 화학과는 화학을, 林·農學과는 토목과 지질이나 잘하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배워온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자세보다는 인간을 교육한다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상상외로 어려운 것이었다。아침7시까지의 출근도 힘에 겨운 일이었지만 학급운영이며 연구수업 각종 학교행정 사무를 익히는 과정은 실로 교사란 직업에 대한 회의마저 가져오게 했다。그러나 짧은기간이나마 「스승과 제자」라는 인정으로서의 학생들과의 대화는 보람을 느끼기에 족했다。남자학교에서의 여선생님의 인기는 여디서나 마찬가지인듯。附高에 실습나간 3명의 여학생들은 수많은 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독차지 하기도 했다。 <Y>

△ 大東中·商高

문리대와 법정대 교생들이 나섰다。사실 삼주일간은 짧은 기일이었지만, 팔팔한 기운의 교생들은 零敗를 면치 못했다。

우리는 많은것을 배우고 돌아왔다。마지막 수업들에 임했을땐 숙제 섭섭한 기분들이었다。학생들의 앙들한 질문과 억지부셩이에 웬만큼 해졌고, 개별적인 情도 들었나보다。 <S>

△ 明星女中

여학교인만큼 여학생들만이 참가하게 되었다。재잘거리기 잘하는 여학생시절을 십분 기억해내면서, 무던히도 속스러움과 갑갑함을 대하는 것이 어디 저리 잘리고 먹혀서 마음놓고 노닐데 없은 한국인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으니 祖國을 또 한번 잃어가는 감회가 절어, 그래도 크게 숨쉴 데라야 이리 저리 잘리고 먹혀서 마음놓고 노닐데라곤 多島海정도이고 보면 그래도 참을 데라곤, 그래도 마음놓고 숨을데라곤, 그래도 세계일국의 조국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볼 데라곤, 이땅에 태어났음을 神에게라도 감사할 수 있을 데라곤, 그래도 汚染되지 않은 生水를 한모금이라도 안실하고 마실 수 있는 데라곤, 그래도 찬란했던 3천년 文化의 흔적이라도 더듬어볼 수 있는 데라곤, 그래도 나마 남아있고, 금수강산의 옛 모습의 약간이나마 金剛山의 나라인것을 그래도 느끼게 하는데라곤, 山밖에 없다。그래서 山으로 가고 또 山으로 가야하는 것이지만, 開發의 名目에 거의 지장이 없었다。金正玄선관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시엔 과감히 처단하겠다」는 말과 입후보자들도 자숙의 태도가 두드러져 가히 두난한 선거였다는게 중평이。강의실을 드나들며 열을 올린 입후보자들도 없었고 그 흔들던 명함장 선관위 구성후 부터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장 모범선거를 치루어 학생들과 교수들의 찬사를 모은건 문리대 회장이된 S후보는 페어 플레이를 다짐하여 시종 선거사무실을 지키면서 게다가 불공선거운동을 치루어 뛰었다。

本紙에 「연재만화」를 그리는 一名 高基里 군—갑은 科 남녀 학생들은 S군을 위해 갖이 露天다방을 차려 시원한 쥬스에서 커피까지 10원균일로, 찾아오는 유권자에게 섹비스。선거街를 돌아보면 지도교수나 관심있는 유권자들은 흐뭇해 내기도 했다。S군은 5백원까지 쓰겠다 하면서 10원에서 5천원은 支出1천원에 收入은 5천여원。그래서 文理大회장이된 그는 평복고 알까지 차지한 행운아가 되었다。입후보자의 茶 밭이 있고 미처 철해되지 않은 山의 原稿이었고, 山岳人들의 발굴으로 부터 어쩌다가 제외된 山의 原狀이 있다, 사람들 피하여 山에가면 아직도 밟지 않은 수풀이 있고 太古를 간직한 古木과 원시림이 사람들의 感容이 있다。이런걸 찾아가고 발견하고 탐험하는데는 여름과 여름山이 안성맞춤이라。山의 신입생도 山의 정년퇴직생도 손쉽게 찾게되는 山이 여름山인것도 이 때문이다。여름이라고 깔보아선 안된다。한 여름에 小白山엔 우박으로 凍死者가 생긴적이 있으며 폭풍우 속에서 山嶽마저 요동하는 漢拏山의 위력 또한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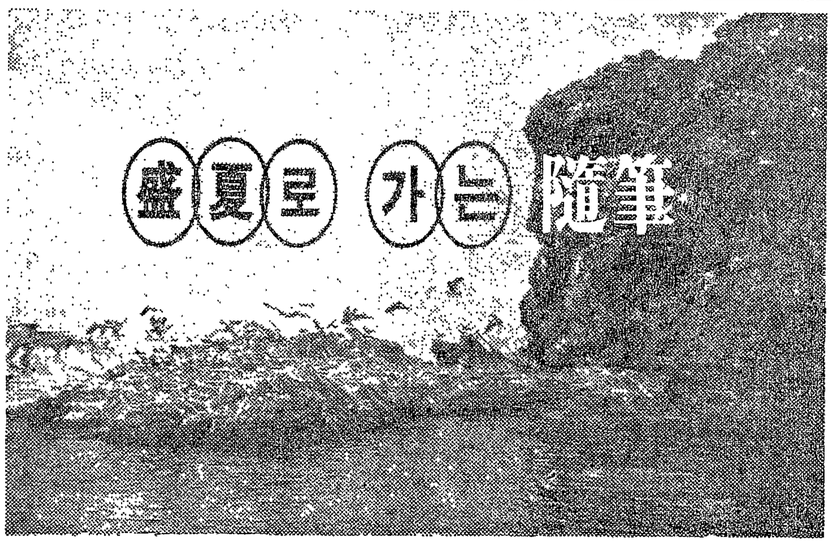
山을 알고 山을 의한 독한 리더를 따라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미덕속에서 山을 알아보지 않는 충분하고도 평화한 잠거울은 밝아놓은 밤상적이 될 것이다。

알피니스트의 욕삭 속에는 반드시 冊과 원고지와 펜지지와 스켓치북과 연필이 들어가야한다。이런걸 빠뜨리도록 버려두는 리더는 무식장이며 아직 산악인으로서의 교양이 덜된 이라고 일컬으지 않으면 아니된다。

山을, 體力으로 오르는것으로만 아는이는 山의 로년병일뿐이다。

山은 體力과 머리를여 心力으로 그리고 智力으로 오르는 것이다。이 점이 바로 登山行爲가 일반 여타의 스포츠와 같으면서도 전연 다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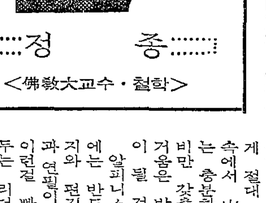
山頂엔 神이 있고 詩가 있고, 진리가있고, 美가 있고, 聖이 있다。신화와 文學과 哲學과 美術과 종교가 에서 생긴다。위대한 알피니스트은 위대한 山岳文人이기도 하다。어느 다른 스포츠에 그업적난 전문 서적들이 있는가를보라。다른 분야의 저서들은 外人들이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山岳에 관한 한 本人들이 쓰지않으면 되지가 않는 體驗이 바탕에 깔려야 기때문이다。體驗만 가지고도 안된다。思索力과 文筆力이 동반해야 한다。따라서 山은 결코 다리와 손으로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이전에 가슴으로 그리고 최후엔 머리로 오르는 것이다。登頂으로 山行이 끝나는것이 아니고 完全 歸巢로 끝나는, 玄元 높은 山行은 山體驗을 追體驗으로 재구성하고, 원고지 위에서 한번 재현되고 정리됨으로써 비로소 끝나는 법이다。이 점 일체가 다른 스포츠와는 그 世界가 다르다。글로써 마음 위에서 또 한번 오르지 않는 山行은 다른 스포츠와 다를것이 없다。알피니즘의 자랑은 아무래도 고차원의 저 山上에 있나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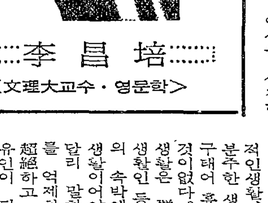
盛夏로 가는 隨筆

여름 그 싱그런 7月이 금빛나래를 활짝 열고 사방에 내려앉았다。프라타나스 잎새마다 반짝반짝 드실대는 볕별, 어느 시원한 탁자 위에선가 유리 그라스를 찰찰 넘치는 바다, 밀치고 밀려오는 새파란 파도, 천길만길 깊어지고 짙어지는 山·山! 무한히 푸르른 젊음, 그 盛夏의 계절에 隨筆 二題를 엮어본다。

여름, 그리고 山


정 종
<학교·수·불교대학>

都市人과 휴일


李 昌 培
<文理大교수·영문학>

都市人의 생활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첫째 도시인들은 개인의 특징을 상실하고 집단과 조직속에 기계의 부속품이나 魚網의 그물코(網目) 같이 끼여서 집단과 더불어 습쉬고 움직인다。그는 집단에서 이탈하면 하나의 낙순 나사못으로 전락하여 생명이 끊어지고 만다。도시인이 집단속에서 겪음과 자기 희생을 강요당하며, 本質의 개성을 상실하는 데서 「群衆속의 孤獨」을 절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집단에서 이탈될 때의 소외감을 맛보지 않기 위하여 악착같이 집단에 집착한다。이것은 분명히 「패라독스」다。

都市人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생활이 바쁘다는것이다。종로 네거리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을보아라。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모두가 한눈 한번 팔지 않고·뛰어간다。몇초만 기다리면 푸른 신호등으로 바뀔 것을 안면서도 그 짧은 기간을 기다리기가 지루하여 붉은 신호등밑에서 뛰는 모습을 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주변다。이렇게 바쁜 군중속에 끼어있으면 간혹 할일이 없어 거리에 나온 사람도 덩달아 같이 뛴다。그것은 바쁜사람들 사이에 자기혼자 완만한 동작을 취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런는 것이기도하지만, 자기가 이 사회의 소외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생각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都市人의 생활로 굳어져 서 점차 그 생리를 거역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나아간다。그래서 도시인은 혼자 있거나 할일이 없어지면 자기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허전해 한다。한 例로서 일요일에 도시인은 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직장의 와와와 휴식을 가져다주는 기쁜 날이다。도시인 들에게 이날은 해방과 진정의 날이다。 토요일은 분명히 시간이 지연되는 날이다。도시인은 이날에 집단에서 벗어나 오전중 집안을 어슬렁 거리며 게으름을 부리다가도 오후 가되면 사람이 그리워지고 閑暇한 시간이 치치 곤한이어서 이 친구 저 친구를 전화로 찾아서 방이나 바둑집으로 붙려낸다。

이렇게되면 이를 도시인들에겐 사실상 일요일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들이 일요일에는 평태를 바꾸어 뜩 잠은 팩턴의 도시생활을 지속한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생활의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도시인은 자기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습관이 붙어야겠다는 것이다。도시인은 조직속에 끼고 남과 어울려야만 비로소 몸의 균형을 지탱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어 있다。이렇게 항상 남과 어울려 있으면 진정한 제 모습을 볼 겨를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그와 동시에 제가 속해있는 이 세상도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東洋의 道敎思想이 현대의 너무 동떨어진 청승맞은 생각 같지만, 인간이 결국 그만한 지혜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현실의 압력과 긴장을 이겨내기 힘들것으로 생각한다。특히 현대의 도시인들처럼 人間褻瀆의 문명속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한껏 잘말하여방황하는 지혜가 약이 될것이고, 조용히 인생을 반성할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生活」을 갖기 위하여 완전히 人家에서 떨어진 숲속 「매사추세쓰州 월든」湖畔에 오두막집을 짓고 원시적 자급자족의 생활을 2년 반동안이나 한 일이있다。 그가 후에 그 숲속의 생활을 가르친 한말들에 의하여 좀 「조용한 선거」를치르기 위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교 달국의 배려로 컬기된 명성여고校舍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한 결과인지 캠퍼스는 차분한 분위기여서 장의 한국인치고 또 山岳人치고 어디서 오고 가면 어디로 갈것인가。山에서 사라고 山에서 시드는것이 한국의 나라의 계절인지도 모른다。山과 山으로 이어지고 앞동산 뒷동산으로 에워싸여진 한국은 그서 山아니면 갈대가 어디랬서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山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한국의 山은 계절따라 山容과 山色에 변화를 가져오는 저울으로써 네배로 늘어나는듯 디며 설 방이 어디란 말인가。모조리 山으로 내맡겨 날은 平地라야 보잘것이 없고, 三面이 바다 山岳人치고 음다라곤, 그래도 마음놓고 숨을데라곤, 그래도 세계일국의 조국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볼 데라곤, 이땅에 태어났음을 神에게라도 감사할 수있을 데라곤, 그래도 汚染되지 않은 生水를 한모금이라도 안실하고 마실 수 있는 데라곤, 그래도 찬란했던 3천년 文化의 흔적이라도 더듬어볼 수 있는 데라곤, 그래도 나마 남아있고, 금수강산의 옛 모습의 약간이나마 金剛山의 나라인것을 그래도 느끼게 하는데라곤, 山밖에 없다。그래서 山으로 가고 또 山으로 가야하는 것이지만, 開發의 名目에 거의 지장이 없었다。金正玄선관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시엔 과감히 처단하겠다」는 말과 입후보자들도 자숙의 태도가 두드러져 가히 두난한 선거였다는게 중평이。강의실을 드나들며 열을 올린 입후보자들도 없었고 그 흔들던 명함장 선관위 구성후 부터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장 모범선거를 치루어 학생들과 교수들의 찬사를 모은건 문리대 회장이된 S후보는 페어 플레이를 다짐하여 시종 선거사무실을 지키면서 게다가 불공선거운동을 치루어 뛰었다。

本紙에 「연재만화」를 그리는 一名 高基里 군—갑은 科 남녀 학생들은 S군을 위해 갖이 露天다방을 차려 시원한 쥬스에서 커피까지 10원균일로, 찾아오는 유권자에게 섹비스。선거街를 돌아보면 지도교수나 관심있는 유권자들은 흐뭇해 내기도 했다。S군은 5백원까지 쓰겠다 하면서 10원에서 5천원은 支出1천원에 收入은 5천여원。그래서 文理大회장이된 그는 평복고 알까지 차지한 행운아가 되었다。입후보자의 茶 개표과정에서 평이있는 법정대가 의외로 정 효표가 나오자 법정대 참관인들은 쓱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예년에 비해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캠퍼스에 모여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을 위해 속속 득표결과가 방송되자 「조용한선거」의 기록을 경신하나 싶었는데…마지막 K大의 개표과정에서 부테이크가 걸렸다。C후보와 L후보가 끝까지 시소를 벌이다가 결국 L후보가 5표의 근소한차로 L후보측 참석패하자 L후보측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 다시 검표에 들어갔다。「유효표냐 무효표냐」로 옥신각신하여 한때 개표가 중단되고 참관인이 퇴장하는등 「밤이 보아오던 풍경」을 또한번 구경할 수 있었다。결국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민첩한 활동으로 론말썽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6월 選擧 취재 노트

露天다방 차려 黑字선거 치룬 候補도

"사뿐히 즈려밟고 한표 주소서"

선거忌避症에 「피켓」든 無言의 시위

<共同 취재반>

○…지난 26일로 막을 내린 학생회 선거가 비교적 조용하게 끝났다는 난 학생들은 뜻밖의 선언을 받고서 꽤 어리둥절했다는데…。

우란반 체구 답답한 장의실을 벗어나 낭 자유스럽게 방학을 즐기려 하는데「섬머·스쿨」이 구 마음대로。』

○…학습분위기 조성등 총학생회 학풍정화운동이 한창인데 반해 몇몇 여단 생시설을 십분 기억해내 면서, 무던히도 속스러움 갑을 수 없었다。

가끔 학생들은 교생들의 옷차림이나 인물평으로 떠들썩하게 입방아를 일삼아 당황하곤 했다。

아침자습을 맡아 지도하고 청소도 함께 하다보니 「여대생과 유행」이니 「미니…」云云하면 大學街는 까마득히 떨어진 기분이었다。조금은 고되고 재미로운 생활속에서 우리들은 어렴풋이 보람을 찾아낼수 있었다。자기가 기일한 성적표는 나눠줄때 어떻게 수없는 의무감—마치 교직자의 사명감인양—을 뿌듯이 느꼈다。

교생들 끝내고 아기자기한 기념선물들을 안고 학교교사로 돌아온 선생님들은 벌써 개학을 나으면서 무언가 확신과 용기를 가질수 있었다。 <K>

○…지난 21일 중강당 가졌는데도 「섬머·스쿨」이 아니 「섬머·스쿨」이 구 마음대로 했다。

○…방학이 눈앞에 다가오면 누가 가라사대 『누어느 마음대로。』

○…학습분위기 조성등 총학생회 학풍정화운동이 한창인데 반해 몇몇 여단 생시설을 십분 기억해내 면서, 무던히도 속스러움 갑을 수 없었다。

가끔 학생들은 교생들의 옷차림이나 인물평으로 떠들썩하게 입방아를 일삼아 당황하곤 했다。

아침자습을 맡아 지도하고 청소도 함께 하다보니 「여대생과 유행」이니 「미니…」云云하면 大學街는 까마득히 떨어진 기분이었다。조금은 고되고 재미로운 생활속에서 우리들은 어렴풋이 보람을 찾아낼수 있었다。자기가 기일한 성적표는 나눠줄때 어떻게 수없는 의무감—마치 교직자의 사명감인양—을 뿌듯이 느꼈다。

교생들 끝내고 아기자기한 기념선물들을 안고 학교교사로 돌아온 선생님들은 벌써 개학을 나으면서 무언가 확신과 용기를 가질수 있었다。 <K>

○…한생관관단까지 파견했던 국민총선거를 치른 여운배문인지 이번선거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역시 적당할만큼은 야단스러웠다。4학년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 「선후배의 敎生실습에」나가있는 선배들을 위해 각고등학교를 순방하며 「노고를 위안하는 입후보자들도 눈에 띄었다。상대방에게 선거운동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속셈을 차린 소위 「올빼미 선거운동」이 주효했다는 소식인데…박상 선거날이 임박해지자 초조해진 각후보와 참모들은 각기 자기를 더 많이 인식시키려고 문앞에서 아침부터 이름을 앞세우고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로 애교가 있는 선거운동은 황건문 30계단마다 5색종이로 이름을 써붙인 법정대와 문리대의 L·S후보들。여학생들은 화려한 (?) 계단을 밟고 오르면서 「가려는 절름 결을 늦인 그이름 사뿐히 즈려밟고 한표 주소서」하고 서로 손크를 던지기도。

○…「공명선거」「조용한 선거」를치르기 위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교 달국의 배려로 컬기된 명성여고校舍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한 결과인지 캠퍼스는 장의 분위기여서 입후보자들도 자숙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손크를 던지고 있었다。나의 소원은 인생을 길이 살려 인생의 모든 순수를 마셔내려, 인생이 아닌것을 나는 부정한다 「스파르타人」처럼 굳세게 살며, 갈초를 잘라내어 인생을 한국적으로 물아서 인생의 본질로 환원시켰…」라고 시위「캠페인」을 벌였다。이날 부표율은 유권자 수가 적은탓인지 불과 92%로 가장 높았고 489명이 투표한 경상대가 42%로 제일 저조했다。

○…오후 5시40분 를로가 모두 차단된 중강당에서 南학생처장등 학생과 직원들과 선관위원 참관인들이 주시하는가운데 개표가 진행되었다。

무효표가 없기로 정평있는 11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개표가 중단되고 참관인이 퇴장하는등 「밤이 보아오던 풍경」을 또한번 구경할 수 있었다。결국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민첩한 활동으로 론말썽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summer——!!!

◎물거품이 솟구치는 계절!!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
짜증섞인 한발한발의
시원한 감촉
가볍고 경쾌한 100%망사화로

금메달 의 집
合資會社 七星産業商社

지성인의 멋과 품위의 전당!

○당신의 양복은…
○잘 맞습니까?
○멋은 있어요?
○가격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동문의집 필그림 양복점
을지로3가로타리
TEL. 26-4769

ELITE교육의 名門
TYPIST 職
CIERK, SECRETARY, COURSE

PEN의 10倍 능률을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직장진출과 來日의 Elite를 꿈꾸는 學生은 在學中에 Typing을 마스터하는 지혜를 압니다

◎교 육
①한발 앞선 최신교육 실무위주의 효율적인 기능개발을 위한 친절한 개인지도및 개인별 교정으로 교육효과 촉진
②48시간 교육으로 기초완성과 동시 1분간타자 180 Stroke 보장

◎입 학…수시입학·시간 자유선택

◎시 설…최신 타자기시설, 에어콘 시설 (서울에 본학원 唯一)

▲국가타자기능검정 본원에서 실시
▲직장진출 희망자는 직장반에 입학시켜 교육후 전원 적성에맞는 上流職場의 Typist. Secretary. Clerk職으로 추천 (취직현황 확인할수 있음)

▲學校在學生 特히 우대함
기타 자세한것은 본원 서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인 鍾路타자學院
종로네거리 화신백화점옆
(전화) ㉔4049

방학중 당신의 힘으로

3,000弗을 약속하는
ZOOM PROGRAMME

ZOOM PROGRAMME(ZP)의 일은 지성을 가진 분은 누구나 하실 수 있으며, 고정된 말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니다. 귀하가 ZP에 참가하시면, 7월 한달 노력의 대가로, 최고 3,000弗(약 일백만원)까지의 소득을 올릴수 있음니다。
ZP에 인원의 제한은 없음니다。능력에 누진적으로 비례하는 고소득을 약속하는 ZP에의 참가는 다음 사항을 우송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 음 : ①대학교·대학·과·학년 ②주소·이름·문패 이름 우편번호
보낼곳 : 서울 광화문국사서함114
재학증명서 1통을 준비해 주십시요

夏季放學中 大學生의 實力補充을 위한
簿記와會計學特講案內
開講日 1971年7月8日 木曜日

課程別	商業簿記	工業簿記와 原價計算	公認會計士準備
講座內容	商業簿記의基礎理論·決算 財務諸表·會社會計	工業簿記의基礎理論 個別原價計算 綜合原價計算	簿記·財務諸表論 原價計算·會計監査論·經營學·經濟原論·商法
講座期間	7月8日~8月7日 (1個月完成)	7月8日~8月7日 (1個月完成)	7月9日~8月24日
講義時間	A班 오전10·00~11·30 B班 오후 3·30~ 5·00	오후5·00~6·30	A班 5·20~ 6·50 B班 7·00~ 8·30
講座特徵	簿記會計의 基礎로서 實力補充은 勿論이고 就職試驗等 各種試驗 對備와 明年度 C·P·A 試驗에 對備하여 10月1日에 開講하는 課程에서 受講하기위한 必須豫備課程		8月25日에 施行하는 今年度 C·P·A本試驗에 對備한 最終 綜合總整理

講師陣 : 院長 C·P·A·金行善外 大學敎授 科目別專攻力講
※失期하고 後悔하지 말고 放學中에 實力을 養成하여 成功의 지름길을 가자
時事會計專院
TEL ㉓6666 ㉔1414 서울역식장 北쪽10m

國文學科 「象友」 첫선

文理大 국문학과 신입생으로 구성된 문예써클 「象友會」에서 발간한 작품집 「象友」 창간호가 나왔다.

신입회원들의 습작의 결실인 이번 「象友」 誌에는 모두 17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4학년 韓信의 찬조시 「풍선」을 비롯하여 詩 9편, 시조, 수필, 소설등이 실렸다.

會誌 머릿글에서 회장 윤태경은 미숙한 작품으로서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넓은 文學精神에 접근할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문학과 선배들이 동석한 24일의 합평회에서 회원들은 선배들의 誌評에 진지한 태도로 의욕의 밝은 미래를 다짐했다.

총 17편 수록

發展할수 있는 水準作品

예찬 질의를 서슴치 않았다.

이자리에서 유일한 時調로 거론된 권영호의 「바람」은 서정적인 작품으로 특징을 보였다.

또한 詩에서 馬淑鉉의 「봄마을에서」와 박정희의 「갑꽃」은 발전할수 있는 수준 작품이었다.

이날의 총평에서 강성찬 국문학회장은 象友회원들의 창작 향상을 격려하는 한편 東國文學

旋律에 나비가

—한라산 頂上을 오르며

배영민

깨어진 房구석에서
램프가 무수히 내리고
끊임없이 저렇게 부서지는 記憶들
날마다 야윈 꽃새움
어느 새 裸木이 되어
한장씩 자꾸만 떨리어 나간다.
내 먼 목소리에 時間이 고이면
긴 백록담, 絶頂에서 발작질하며
나는 귀를 바다모래처럼 씹으며
몹시 바람을 날리고 있었다.
겹겹이 흔들어 쌓이는
신발 끄는 소리,
금테안경에 끈끈한 기침소리가 들리고
매끈한 손길을 뿌리던 縱魂이
하찮은 日常처럼 돼 버렸네.」
고단한 山房이 물어 내려
憤怒가 진한 바람에 떠는
긴 나비의 行列이었네.
눈을 감으면 바람이 일고
그 눈속에 사슴이 빠져
나의 키 큰 전봇대가 四方에서
가난한 나무밑으로 사라져 가고
오오, 피로한 하루가 한장씩
올실처럼 잘려 나갈 때
긴 긴 산줄기의 古木이
주머니마다 근시안경을 채우고
마침내
나는 새하얗게 높이 오른다.

<工大 倉工科>

단편희곡 〈完〉

깜짝소리

高碩明

여=(갑자기 히스테리칼하게) 그건 개 짖는 소리라니까요. 개 짖는 소리. 그 둔탁한 소리…. 아, 소리. 짖는 소리. 찢어지는 듯한….

남=아니야. 잘못 들은거야, 당신은. 그 소리는 아니야.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아! 한느님! 나에게 그 소리를 다시 한번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만…. (여, 멍한 모습으로 허공을 보고만 있다.) 하느님, 다시 한 번만, 그 소리를….

여=(깜짝 놀란다.)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

남=저건…? 맞아! 저거야! 저, 저소리. (소리친다.)

닭 우는 소리 두드려진다—

남=바로 그것이야. (아내를 돌아보며) 그래. 아까…내 귓가에서 「뱅뱅」 돌며 떠나지 않던 소리, 날카로운 소리. (관중석 멀리 허공을 보며) 들림없이. 그 예리한 소리…. 들림없지. 그 예리한 소리…. 다시 한번만…. (얼어나며) 아침마다 (무대 앞으로 나서며) 그래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닭 우는 소리예요.

남=닭 우는 소리 (의자에 앉는다.)

여=그래요. 닭이 우는 소리가 아침마다 들렸던 거예요.

남=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 닭은 아침마다 목을 놓아 울어댔지.

여=(남편을 보며) 그런데…. 당신,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렸는지 알겠어요?

남=(아내를 보며) 그럼, 당신은 알아? 그 닭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울었는지를…?

여=(걸으며) 네. 알구 말구요. 그건 아마도 시골에서 울려오는 소리일 거예요. 밤의 역겨움고 막히는듯한 깜절을 주둥이로 깨는 소리일 거예요.

남=(겁질?) 밤의 겁질…?

여=저 멀리 시골에서!…. 냉을 흐르는 소리「졸졸」…. 당신, 그렇게 생각 않으세요?

남=(겁질이 깨지는 소리…. (중얼거린다.)

여=물소리…. 새소리도 들릴 거예요.

(남편의 등 뒤로 다가선다.)

남=그렇지. 이제야 생각이 났다. 그래. 아침마다면 들렸지. 밤을 깨는 소리였어. 그런데, 그 소리만 나면 생각나는것이 있어. 그건 정말 무서운 광경이야. (회상하듯) 어느 날인가 시장(市場) 을 지나면서 본 적이 있지. 흥경에, 울에 갇혀있을 때의 꿈은 붉은 털로 변하면…. 피를 쏟던 소리. 아, 피를 쏟아내던 소리….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아! 이제야 풀어질것 같다. 한낮 (同日) 한시 (同時) 경이야. (회상하듯) 어느 날인가 시장 (